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최 정 은*

1. 들어가는 글
2. 사회적 기억
3.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 구술기록
 - 1)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
 - 2) 구술기록
4. 기억, 구술 그리고 기록화
 - 1) 구술과 기억
 - 2) 기억, 구술 그리고 기록화
5. 아키비스트 역할론
 - 1) 적극적 주체로서의 아키비스트
 - 2) 구술기록과 아키비스트
 - 3) 구술기록 수집 및 기획단계에서의 아키비스트 역할론
6. 나오는 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국문초록]

최근 기록학계의 화두는 ‘패러다임 변화’라 할 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억’ 기록화 개념을 통해 구술기록과 기록학의 적연성있는 관계설정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학적 구술기록 관리의 주체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관점을 적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억’ 기록화 개념을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화두와 관련된다. 주로 국외 기록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할 것이다. 둘째, 기록 관리의 제 단계 중 특히 수집 및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한다. 기록학적 관점은 생산 시점 이전 기록의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단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및 기획단계이며, 이는 생산이 곧 수집을 의미하는 구술기록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개념의 설정이다. 많은 구술사 연구자들에게 ‘구술자료’라고 통칭되는 구술면담을 통해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으로서 개념화한다. 넷째, 기록학에서 왜 구술사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설정이다. 기록학에서 구술사를 다루는 목적과 그 당위성을 학문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기록학에서 구술사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록화를 통하여 구술기록은 그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술사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구술사에서 아키비스트는 단지 연구자들이 수집해온 구술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보조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당위성을 얻은 기록학계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단순히 기록학에서 구술사를 점유하겠다는 것이 아닌 다른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한국 구술사 연구의 도약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록학계의 발전과 연구범위의 확장,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역할 신장과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구술사 연구에 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어 : 기록학, 구술기록, 구술사, 아키비스트, 사회적 기억, 패러다임 변화

1. 들어가는 글

구술기록은 아카이브(Archive)¹⁾에 보존됨으로써 공적기록이 된다.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료화되어 광범위한 이용가치를 획득한다.

1) 여기에서 아카이브(Archive)는 집합적으로 축적된 기록물 또는 그것을 수집·보존·정리·관리·공개하는 기록관 및 그러한 시스템을 동시에 가리킨다. 따라서 구술 아카이브란 다양한 매체에 수록된 구술기록 및 관련 자료의 집합 내지 그것을 보관·정리·공개하는 기록관 및 그러한 시스템이라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술기록은 생산 및 수집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록학적 관점의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구술의 '구술기록'으로서의 의미 부여와 나아가 그 사회적 의미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최근 기록학계는 이른바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²⁾'로 인해 의식적 전환을 시작했다. 보다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기록의 무한한 가능성과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패러다임 변화의 영향 하에 논의되고 있는 기록학계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구술의 기록화에 대해 다룬다.

최근 구술사 관련 연구에서는 기록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기록학과 구술사의 필연적 조우의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09년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의 한 세션이 한국 구술사학회를 통해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 현실적 반영이다. 각계의 구술사 관련 연구자들은 구술기록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관리와 활용이라는 체계적 단계가 절실하며 그것이 곧 구술기록을 통한 '구술사하기'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기록학계에서는 기록학적 관점 하에 어떻게 하면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구술기록의 기록화를 가능케 할 것인지와 독자적 기록의 한 형태로서 구술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연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연구사, 역사학자 등이 구술기록의 수집에서부터 보존 관리까지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록학계에서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기록학의 소위 '패러다임 변화'는 포스트모던 이론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포스트모던 이론은 학계 전반에 걸친 구술사의 정당성을 피력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기록학계에서도 이를 적용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의 이론적 변화와 관련하여 구술기록을 기록학 범주에 두는데 있어 이를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 연구 동향을 보면 1990년대에만 해도 구술사 방법론을 이용한 학위논문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 학계에서도 전 시기보다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0년대 국내에서 생산된 구술사 관련 학위논문은 대부분 기록학계의 구술기록 수집이나 관리 방법을 다룬 것이라는 점이다. 구술사는 이미 기록학계 일반에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된 듯하다.³⁾ 그러나 국내 기록학계의 연구는 다양한 목적과 배경에 의해 생산되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구술기록을 아카이브에서 이관하여 관리·보존·활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또 구술기록의 생산과 수집을 다룬 연구라도 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정리하고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다. 구술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의 소위 ‘폭발적 증가’가 이뤄지고 구술기록을 다

3) 2000년대 발표된 구술사를 토대로 한 석사학위논문은 구술사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이라기보다는 구술기록관리를 둘러싼 논문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한정은, 「대중적 이용을 위한 구술기록의 수집과 활용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권명숙,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 : 민간인학살사건 다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지수, 「대통령 구술기록 수집 방안 : 김대중 대통령 구술 수집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화은,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의 면담조사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김현승, 「해군 구술 기록의 수집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민영, 「구술기록의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영록, 「구술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한지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은영,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구술기록의 정리방안 연구 : 국가편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등 김귀옥, 「구술사쓰기의 방법과 절차 : 사례에 기초한 이론화의 시도」, 『구술사연구』 제1집 1호, 2010 참조

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기록학에서 구술기록을 왜 다루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김명훈의 연구는⁴⁾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기록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선구적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구술기록의 수집 및 생산 목적을 ‘문자화된 기록이 남지 않은 분야’로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기록이 문헌기록의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문헌기록에서 얻을 수 없는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⁵⁾ 문헌기록이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구술기록은 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한국 구술사 연구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종의 ‘구술사 의미 한정짓기’는 결국 구술기록 수집 및 생산이나 구술사연구 양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격적인 구술사 연구가 발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구술기록의 활용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록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기록의 활용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록학계에는 양날의 칼과 같이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의 활용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면 기록학계에서 구술기록을 다루어야 할 필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구술사의 존재 이유 중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첫 번째는 구술기록이 문헌기록의 양적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록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4)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호, 한국기록학회, 2010.

5) 특히 한국사학계는 구술사의 의미를 문헌기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술기록 수집에 제한하는 경향이 강해서, 구술기록을 문헌기록과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에 관한 정보로써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본격적인 구술사 연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와 현실』 71호, 2009, p.305.

기록의 수집 및 보완과도 연결된다. 문헌기록의 양적 한계 혹은 결락 기록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구술기록은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 범위를 아카이브에서의 구술기록 수집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술기록은 생산함과 동시에 그것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단 아카이브에서 다루는 구술기록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⁶⁾ 구술기록은 인류학이던 사회학이던 기록학이던 간에 학제적 특성을 넘어 기록학적인 관점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의 피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최근 기록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한 움직임들과도 연결되는 가치이다.

국외 기록학계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005년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쿡(Terry Cook)은 테일러(Hugh A. Taylor)가 캐나다 아카이브의 기록범주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테일러는 기존 기록의 범주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록을 다룰 것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는 구술기록도 포함되어 있다.⁷⁾ 쿡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최근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가 촉발되었다고 본다. 또한 베니슨(Saul Benison)의 연구는 구술사 연구의 역사와 구술사와 기록학의 관련성 제고를 촉진시킨 연구이다.⁸⁾ 이 연구는 구술사와 기록학의 관계성을 조명하고, 구술사의 발전에 대해 기록학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구술사의 주요

6) 다음의 논문에서 조용성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구술기록에 있어서 수집은 이미 생산되어져 있는 기록의 단순 물리적 이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차 자료의 생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호, 한국기록학회, 2010.

7) Cook, Terr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Records and Archives(I-CHORA)”, *Archivaria* 60, 2005.

8) Benison, Saul, “Reflections on Oral History”, *The American Archivist* 1-28, 1965.1.

기능은 기록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 본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기술 발달은 다양한 개인들과 조직의 삶 속에서 문자기록을 사라지게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역사사료로서의 구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구술의 기능은 단순히 현존하는 문헌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사건과 행위에 관련한 방대한 1·2차 자료의 정리 및 편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구술사를 다룰 때 구술 관련 수집 및 생산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⁹⁾

한편 학계에서는 ‘기억’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연구를 다각화시키기도 했다. 1990년대 기억 연구의 활성화로 집단기억·대중기억 등 다양한 용어가 나타났다. 학자에 따라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유사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기록화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구술기록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구술기록이 그 특성상 ‘사회적 기억’이라는 이상적 형태의 기억을 담아내는 대상이라 보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비단 구술의 형태를 지닌 내용뿐 아니라 관련된 문헌기록, 영상기록, 사진기록 등 다양한 매체에 담긴 기록을 상호 연결한다. 동시에 다른 주체와 목적 하에 수집된 기록들과 다양한 기억이 담긴 기록들이 서로 접근하도록 이끈다. 물론 구술기록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기록 형태는 아니다.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지 기록화라는 의식적 전제하에서 수집되거나 생산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억을 담는 좋은 매체가 된다. 또한 기억과 구술 그리고 기억과 기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통해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

9) 이와 관련하여 구술기록은 문헌기록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Swain, Donald, "Problems for Practitioners of Oral History", *The American Archivist* 1-28, 1965.1, p.64.

볼 것이다. 기록화를 통하여 구술기록은 그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구술기록과 기록학의 적연성있는 관계설정을 다룸으로써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학적 구술기록 관리의 주체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론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사례조사나 실무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몇 가지 중요 논점을 통해 기록학계에서의 구술사 연구와 그 역할에 대한 이론적 범주를 설정하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로써 기록학계의 발전과 연구범위의 확장,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역할 신장과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 구술사 연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사회적 기억

국내·외를 아울러 기억의 문제는 그 사회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 학문적 관심의 근원 가운데는 문화사회학과 지식사회학의 부활, 사회사로의 전환 및 그 다음에 일어난 문화사로의 전환과 함께 이와 관련되어 역사서술의 특권에 관해 제기된 문제의식, 대안적 서사의 원천으로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에 대해 제기된 다문화주의의 관심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고, 분과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는 매우 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졌고, 사례연구는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¹⁰⁾

기록학계에서의 기억 연구는 주로 포스트모던 이론과 기록학의 접목을 다룬 연구에서 진행되었다. 기존에 기억과 정체성의 개념은 기록학 이론과 실무 연구에 있어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기록학에서 다루어야 할 개념들은 확장되어 특히 기억의 메타포로서 혹은 기억 저장소로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¹¹⁾ 지머슨(Randall C. Jimerson)은 아카이브는 '기억 보존소'로서 과거를 검토하기 위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카이브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으며, 소위 '기억구성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과거를 바라보는 균형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국내 기록학계에서 기억연구는 정영란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영란은 집단기억의 기록학적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이를 담는 주제기록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¹³⁾ 또한 원종관의 연구는 전자기록환경에 조용하며 변화한 증거와 기억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¹⁴⁾

10) 이는 포스트모던적 관점이 투영된 최근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도 유사하다. 제프리 K. 올릭 편, 최호근 외 역, 『국가와 기억 :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 2006, pp.16~18.

11) Taylor, Hugh A., "The Collective Memory : Archives and Libraries A s Heritage", *Archivaria* 15, 1982; Cook, Terry, "Shifting the archival paradigm for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2010년 스코틀랜드 던디(Dundee)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Memory, Identity and the Archival Paradigm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발표논문 참고. 발표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dundee.ac.uk/cais/memoryandidentity/index.htm>

12) Jimerson, Randall C.,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 & Services* 19-3, 2003. 지머슨은 이 논문에서 기억을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 역사적 기억 그리고 기록(학)적 기억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알브락스에 의하면 '역사적 기억'이란 용어자체가 모순된 것이다. 즉 역사는 인류 보편적 기억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그러나 보편적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택림 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서울, 2010, p.108.

13)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 본 주제기록관(special subject repository)에 관한 연구 :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원중관은 업무로부터 생산되는 증거의 확보뿐 아니라 기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 또한 현대 기록학에서의 주요 과제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는 증거와 기억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적·집단적 기억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 즉 한 사회는 기억되고 반추될 만한 가치,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을 ‘결정’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을 매개한다. 동시에 집단기억 자체는 과거를 재현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현실의 맥락에 개입하고 유통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범위를 확장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억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억의 사회성에 주목한다.¹⁵⁾ 기억의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특징에 주목하는 이론적 전제는 기억 속에 본질적으로 집단적 성격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직접 재연하는 회상 행위이자 그 내용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행위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운 경험이 아니다. 같은 경험을 겪은 집단 성원들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억을 구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억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갖는다.¹⁶⁾ 한 사회에서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는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집단기억’은 한 집단의 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기억이다. 하지만 집단기억은 사회 구성원의 자기정체성의 형성에 공헌하지만, 그 사회 내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측면을 일원적이고 폐쇄적으로 설정한다는 한계가 있다.¹⁷⁾

14) 원중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5) ‘사회적 기억’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6.

16)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6집 제3호, 1999, p.551, 557.

이에 다양한 개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개념이 있다. 개인적 기억의 사회화 과정과 집단기억의 개별화 과정에 보다 관심을 둔 것이 ‘사회적 기억’이다. 집단기억을 한 ‘사회의 기억(memory of society)’으로 본다면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의 기억(memory in society)’이다. 즉 사회적 기억이란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기억이 실천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기억들이 형성되고 여러 기억들이 갈등하고 혼재하는 기억들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은 다중적이고 일시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삶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 내의 기억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기억은 새로운 상황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에 관한 관심은 기억의 진실성 여부보다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있다.¹⁸⁾

기억의 사회성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억은 ‘남겨진 과거’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소통되고 목적의식적으로 구축된 기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¹⁹⁾ 모든 회상은 사회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록학 영역에서도 유효하다. 남은 ‘잔여’로서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생산과 포착·획득에 의식적이고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력이

17)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서울, 2009, p.92.

18) 이 부분은 다음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6.

19) 푸테(Kenneth E. Foote)에 의하면,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집단기억의 개념이 사회의 지속성 및 동질성을 생산하는 한 사회 내 개인들에게 공유된 신념이나 사고를 의미한다. 푸테 스스로 정의내린 집단기억은 과거 기억을 보존하는데 있어 기능하는 개인 및 조직들이 각각의 관점과 목적을 통해 과거를 재현해내는 것이다. 즉 푸테는 각 개인과 조직체의 관점과 그들 나름의 목적의식이 반영되어 과거가 재현되고, 그것이 집단기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oote, Kenneth E., “To Remember and Forget : Archives, Memory, and Culture”, *The American Archivist* 53, 1990, p.340.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붐스(Hans Booms)를 비롯하여 기록이 사회를 표상해야 하며 기록은 그 자체가 그것을 만든 사회를 통해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²⁰⁾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증거 즉, 이른바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기록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곧 기억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그 기억을 담아 기록화한 ‘기록’도 사회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3.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 기억 개념 변화

1)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

20세기 중반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성, 진실과 같은 가치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대의 획일적 구조에 대한 확고함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즉,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 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석의 무한성, 사실의 허구성, 연구의 주관성 등을 부각시켰다.²¹⁾ 기억이 오랫동안 표상하던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이 부정되면서 사회적 가치의 편향성, 주관성 등이 부상하였고 이는 사회적·집단적 기억 개념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기억을 담아내는 매체로서의 기록 개념을 확장하게 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 기억은 수동적으로 ‘남겨진’ 유산이라는 의미가 아닌 집단적·사회적 기억의 목적의식적 구축과 형성이라

20) 이승억,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호, 한국 기록학회, 2005, p.70.

21) 김상수, 「자끄테리다와 헤체」, 『서양사연구』 33집, 2005, pp.124~125.

는 개념으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이러한 기억 개념의 변화에 맞물려 과거의 재현 형식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개체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에 그 역할 담당을 기대하게 되었다. 역사가 기록을 단지 사료로 간주하고 역사가의 주관과 사고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집필’하거나 ‘배치’하는데 반해 기록은 원형으로서의 과거를 일정 부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차별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억을 담아내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기록에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록에 대한 일련의 기대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촉발된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현실화가 가능하다.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는 주요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카이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아카이브는 공적이고 중립적인 저장소로서 역사가들의 역사 연구를 위해서나 국가의 공적·법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최근까지 아키비스트는 불편부당성이나 중립성 등을 그 고유의 역할로 인식해왔다. 자연스럽게 중립적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에 보관되는 기록 역시 활동의 부산물로서 그 안에 의도성이나 주관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진리’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 부여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 그리고 기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요구하며 새로운 담론 형성을 자극한다.

매케미쉬(Sue Mckemmish)는 ‘아카이브 재표상(refiguring the archive)’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담론을 재표상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²²⁾ 그는 기존 아카이브의 기록화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에 주목했고 근대 서구 기록담론에서 아카이브의 한 형식으로서 구술(Orality)은 심각하

22) Mckemmish, Sue, “Traces :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McKemmish, Sue,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ed), Archives : recordkeeping in society, Topics in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No.24, Wega We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p.18~20.

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구술의 형식을 지닌 것들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문학, 예술, 유물, 건축, 풍경, 춤, 의식과 행사 등도 그들의 잠재적 증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존 기록 범주에서 소외되었던 것들 즉, 문학, 예술, 유물, 건축, 춤 그리고 구술 등이 왜 소외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실증주의는 문헌 중심 아카이브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비문헌적인 것은 곧 비실증적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게 되어, 비실증적인 것은 기록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아카이브에 대한 폐쇄적 이미지를 표상하게 하였으며, 기록학계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적 사고는 ‘아카이브 재표상’을 위한 가능성을 자극했다. 포스트모던 기록 담론이 가진 아키비스트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아카이브를 통제함이 없이는 정치적 권력도 없다’는 데리다의 말과 같이 지식과 기억이 경쟁하는 정치적 장소로서의 아카이브를 논하고, 권력 관계를 구체화하며 포함과 제외, 기억과 망각의 처리 과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은 기록에 우리의 흔적들을 새기고,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즉 이러한 논의에 의해 재표상된 아카이브는 지식과 기억이 경쟁하는 역동적인 장소이며, 그 안에서는 권력관계가 반영된다. 아카이브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으로써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하고 망각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자유롭게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록에 어떤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이를 고민하여야 하며, 특히 아키비스트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역할이 곧 그들에게 ‘신화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진리로서의 기록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을 생산한 개인과 조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탐구한다. 그들 역시 기록화의 전반적 과정에 스스로의 관점과 스스로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과정을 기록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개념과 가장 맥이 닿아있는 케텔라르의 이론은 'Archivalis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²³⁾ 무언가를 기록화할 가치가 있음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Archivalisation'이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떠오르게 한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망각되며 그것은 곧 이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기록하기에 앞서 기록학적 관점에서 세계를 어떻게 조명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록이 생산되고 통제되는 방식을 바꾸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아키비스트들은 기록관리 제 단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록이 생산될 때 무슨 기록이 왜, 어떻게 파일링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기가 불가능할 것이며, 결국 후대에는 그 과정에 대해 짐작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카이브는 중립적이지 않다.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수집할 때 그 과정에서는 특정 요소만이 선별되고 그 외의 것들은 배제된다. "먼지 쌓인 아카이브에서 바로 꺼냈을 때조차, 증거는 기준에 존재했던 내러티브 구조 내에 위치하며 누가 왜 어떤 아카이브를 포함시키거나 혹은 배제했는지에 관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 먼슬로우(Ala Munslow)의 관점에 동의하며, 케텔라르는 이를 '배제의 프로세스

23) Ketelaar, Eric, "Archivalis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p.54, 57.

(process of exclusion)’로 설명한다. 사실이 기록되는 동안에 그리고 기록이 생산될 때와 이를 통해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야기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까지 각 과정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처음 사실이 기록될 당시 배제된 것은 이후 단계에서도 배제되며 궁극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진다. 결국 배제의 프로세스는 기억될 것과 망각될 것이 결정되는 과정이며, 기록화 여부를 통해 이후 기록을 활용한 역사 연구와 그 결과로 창조될 ‘역사’가 결정된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기록화는 역사를 통해 기록될 사실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기록화의 엄정한 의미를 인식하여 아키비스트들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기록화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기억을 얼마나 기록화하여 남길 것인지 기록을 생산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인식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기록학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1898년 기록학 이론이 제대로 발달하기 전에 등장한 ‘Dutch Manual’은 기록학의 방법론의 정리하고 표준화했다. 이로 인해 초기 네덜란드 아키비스트들은 ‘왜’라고 묻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라고 묻도록 요구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관리 업무의 절차나 방법, 기술적 측면에 집중했다. 아키비스트는 주로 기록관리의 실무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집중해왔다. 따라서 실무를 뒷받침할 기록학적 방법론의 수립과 수행에 주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비스트는 그들과 분리된 또 하나의 전문 집단으로 기록학 연구자 집단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즉 전문 연구집단과 실무집단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국내·외 모든 기록학계가 경험한 현실이다. 하지만 아키비스트가 이론이 아닌 방법론에만 충실해도 기록을 소위 잘 ‘처리’할 수는 있지만, 기록학 실무와 이론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자연스

럽게 따르게 되어 있다. 기록학 이론의 연구는 곧 실무적 차원의 역동적 발전을 가져오고, 실무적 차원으로의 적용은 다시 이론에의 변화와 발전 등 그 유연성을 자극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록관리가 기계적 업무가 되는 것을 막고, 변화하는 기술과 도전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개념이 바로 ‘사회·문화적 기록학’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최근 변화하는 기술과 이론 및 담론의 도전들은 아키비스트들의 눈과 마음을 열었다. 전자 기록의 출현으로 기록학이 처한 담론과 현실의 근본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기록학의 오래된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대체되어야 했다.²⁴⁾ 아키비스트는 자신을 위해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 유산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 공부한다.²⁵⁾ 또한 아카이브를 생산하는 사회와 조직,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을 탐구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 ‘사회·문화적 기록학’이다. 그것의 목적은 기록 생산, 처리, 이용의 연속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록학은 기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문화와 기록을 생산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룬다.²⁶⁾ 즉, 기록의 생산·처리·이용 상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규명해내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아카이브를 생산하는 사회와 조직,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24) 쿤(Thomas Kuhn)에 따르면 패러다임이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학문적 업적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에 대해 설명 모델을 제공하고 그 근본을 정의한다.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96, Ketelaar, Eric, “Archivistics Research Saving the Profession”, *The American Archivist* 63, 2000, p.325 재인용.

25) Eastwood, T., “Reforming the archival curriculum to meet contemporary needs”, *Archivaria* 42, 1996, p.83.

26) Ketelaar, Eric, “Archivistics Research Saving the Profession”, *The American Archivist* 63, 2000, p.326, 328.

기록 유산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록학의 역할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에 대한 의미 변화이다. 기록은 수동적 결과물이 아닌 역동적 과정과 의식적 계획의 산물이다. 이러한 의미의 기록을 다루는 기록학은 단순히 실무적 차원을 지원하는 학문이 아닌 기록관리 전반에 개입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키비스트는 실무자뿐 아니라 이론가, 연구자로서 기록과 그 기록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을 연구한다. 또한 기록의 생산 및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의 역동성을 기록화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

2) 구술기록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개념 정의는 구술사가 구술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나, 피지배층의 구술기록을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보는 관점 등 그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하다. 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구술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구술에 기반을 둔 역사 서술이며 다른 하나는 구술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자료라는 것이다.²⁷⁾ 구술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며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구술사’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구술기록’, ‘구술사료’ 또는 ‘구술자료’라고 일컫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구술사가들은 구술기록을 구술 행위의 결과물로서 생산된 또 하나의 사료나 자료로서 이해해왔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자

27)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 구술자료, 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2004, p.3.

료 생산으로서의 구술행위와 그 결과물로서의 구술기록을 다른 기록과 구별 짓는 특징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구술을 기록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술기록은 대표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역사연구나 다른 사회과학 연구에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많은 구술사가들은 구술기록을 사적(史的), 기록학적 자료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술기록이 다른 기록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구술기록의 고유 특성을 찾아 그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기존 구술사가들이 정리한 구술기록의 특성은 곧 다른 종류의 기록과의 관계에 있어 구술기록의 독립적 가치를 뒷받침하여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역사학과 인류학 기반의 관점은 자칫 구술기록과 문헌기록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위치시킬 위험이 있다. 구술기록의 서사적 진실이 문헌기록의 사실적 진실과 대치된다거나 혹은 문헌기록 역시 서사적 진실이 사실적 진실로 대체된 것뿐이라는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종류의 기록 모두 사실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애초에 사실적 진실에 도달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적인 인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사실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과거를 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역사학의 학문적 이상이며, 그것을 가능케 할 저변을 구축하는 역할은 기록학에 기대할 수 있다. 남아있는 다양한 기록을 통해 연구자가 나름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여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역사학이라면, 그 원천으로서의 다양한 기록군을 구축하는 것은 기록학의 역할이다. 이때 기록학은 최대한 다양한 원형으로서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각 기록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기록의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추후의 제 기록관리의 단계별로 각 기록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록학의 영역이다.

따라서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특성은 문헌기록과의 차이를 드러내어 기존 문헌기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술기록 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헌기록과 함께 다양한 기록군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특성은 우선 구술기록은 수집과 생산이 일치된 형태라는 것이다. 수집과 생산의 일치는 곧 수집 및 기획에 있어서 선 계획을 구축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미 생산된 기록을 이관받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록 수집을 위해 생산을 기획하고 그 방법론 자체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술기록의 이러한 특성은 기록학적 관점 하에 그 수집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을 동시에 의미한다. 둘째로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구술기록의 다양한 형태이다. 우선 구술기록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생산되는지, 아니면 계획 하에 생산되었는지에 따라 구전(oral tradition)과 구술 증언(oral testimony) 및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로 구분할 수 있다. 구술기록을 수집할 때, 연구자가 구술 증언을 유도했건, 구술 생애사를 요구했건, 실제로 상당 부분은 이 두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의 생애사를 면담한다 해도, 그 개인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세대를 통해 전승해 오는 구전과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을 모두 자신의 생애사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 구술기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구술기록의 성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구술기록의 구분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구술면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구술 기획 단계 기록’, ‘구술면담 기록’, ‘면담후 기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점을 통해 구술기록을 세분화하는 것은 구술기록의 생산맥락이 단계별로 다양하다는 특성을 반영한다. 구

술면담 행위가 일어나는 당시에 생산되는 것만이 구술기록이라면, 그 전의 준비과정이나 구술자 선정과정 등 중요한 정보가 소실될 수 있다. 또한 구술면담 행위 이후에 구술기록을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미치는 구술기록에의 영향력 또한 놓치게 된다. 구술기록은 수집이 곧 생산을 의미하면서 수집과정의 다양성이 곧 구술기록의 내용 측면이나 형식 측면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면담 행위를 기점으로 그 전후 맥락을 포함하여 구술기록을 이해해야 한다.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은 ‘물리적 형태나 매체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 과정 중에 생성·접수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로서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구술기록의 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형태와 매체를 구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행위 과정 중’의 의미있는 것들을 기록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말 그대로 구술을 통해 생성된 기록이기 때문에 구술행위 자체의 기록화가 중요하지만, 구술면담을 통해 생산되는 녹음 및 영상을 녹취하거나 그 자체로 기록화하는 것만이 구술기록인 것이 아니다. 구술 행위 과정 전반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술기록의 수집 및 생산을 둘러싼 일련의 제 과정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을 크게 세 가지 구술면담 이전과 구술면담 상황, 구술면담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구술 기획 단계 기록’은 구술면담 행위 전에 구술기록을 수집 및 생산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술면담 행위 직전까지의 기록을 의미한다. 이 단계의 기록을 세분화하면 먼저 구술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기획을 위해 조사한 자료가 해당된다. 이때 수집자료에는 기존의 문헌기록이나 영상기록 등 그 매체와 형식을 막론하고 구술기록 주제와 목적에 적합하여 수집 주체들이 조사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로 아카이브를 통해 관련 주제와 관련한 문헌기록을

정리하여, 기존 문헌기록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 수집되고 생성된 자료들이 해당될 것이다. 이때 기존 문헌기록들은 새로운 기록화를 통해 재해석되며 구술기록의 한 부분으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또한 구술주제와 관련한 구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와 관련한 관련 기록을 수집하게 될 것이며, 구술자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기록이 생산될 수 있고 기존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듯 구술을 통해 담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구술자를 선정하며, 면담자를 통해 선행연구를 진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 역시 기록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의 기록화는 곧 구술기록을 보다 완전하게 한다.

두 번째로 ‘구술면담 기록’은 구술면담이 일어나는 시점에 생성 및 수집된 기록을 의미한다. 구술면담일 당시에 구술자가 면담과정에서 기증한 기록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술자가 왜 그러한 기록을 기증하게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면담자의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증이 유도되었을 수 있고, 혹은 구술자가 미리 면담 시작 전부터 준비해둔 기증기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기증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면담 당시의 기록으로 이해하여 면담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술면담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음성으로 녹음하게 되는데 이때의 영상파일과 음성파일이 모두 구술기록에 포함된다. 그리고 면담자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 그대로 질문을 한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메모를 통해 질문을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때 수정된 질문지도 기록화될 필요가 있다. 구술자의 반응이나 면담 당시의 분위기 등은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면담자가 이를 메모하여 기록화할 수 있어야 한다. 면담자 개인의 관점이 반영되지만 이러한 관점의 반영 역시도 중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술기록

은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면담후 기록’은 면담이 종료된 후 생성·수집된 기록이다. 주로 면담일지나 면담후기, 녹취록 등이 해당된다. 이때 녹취록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음성의 원본 자체를 녹취한 것과 검독과정을 거쳐 구술자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및 수정이 이루어진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판본이 생산된 배경과 맥락을 기록화하는 것이다. 구술자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비공개 및 수정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추후 수정된 녹취록을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해석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담후 기록’에는 구술면담 이후 구술기록 수집 주체들이 구술내용을 분석하여 그 한계 및 의의를 나름대로 정리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보통 국내 구술기록 수집 프로젝트는 구술기록을 수집하여 모(母)기관에 이관할 때에 구술기록 수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구술기록 수집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주체들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구술기록으로서 기록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술기록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세분화될 수 있고, 그 범위가 축소 및 확대될 수 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구술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기록이 생산되는 다양한 맥락을 가장 적절하게 기록화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시간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술면담 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구술기록 수집을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록화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곧 구술기록에 구술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록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술기록이 그 생산 및 수집 주체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기록의 범위 역시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4. 기억, 구술 그리고 기록화

1) 구술과 기억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역사나 구술사와 자주 비교된다. 기억과 역사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기억은 구술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기억과 구술사 연구는 역사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연구하기 보다는 기억이 형성되고 전수되며 재현되는 사회적 과정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에서 기억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정치권력과의 관계나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화적 가치, 집단의 특성 등 사회문화적 맥락에 더욱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를 다루는 것이 항상 현재 속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구술사도 역시 기억을 적절히 위치시키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는 과거의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사적 또는 공적인 영역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집단적·사회적 기억의 형성과정이다.²⁸⁾ 즉, 구술을 통해 기억은 공적·사적으로 위치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아카이브는 과거를 검토하기 위한 유용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억의 저장소이다.²⁹⁾ 인간은 과거에 대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과거의 어

28) 김무용, 「과거청산 작업에서 진실말하기와 대한 내러티브 주체의 형성」, 『제주4.3 6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기억의 구술과 역사』, 제주 4.3연구소, 2010, p.147.

29) Jimerson, Randall C.,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 & Services 19-3, 2003, p.89.

는 시점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곧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유사한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통해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거를 알기 위해 유용한 증거는 어떤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가장 유용한 증거로서 ‘기억’에 관심을 가져왔다. 증거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은 기억은 그래서 항상 신뢰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다루어졌다. 기억이 과거를 온전히 보여주는지 혹은 왜곡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주로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억의 신뢰성 문제에서 벗어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그것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구술사 연구는 주로 기억의 특성 및 의미에 대해 집중했다.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재현의 삼각관계를 파헤치면서 ‘기억의 사회적 생산’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이때에는 주로 어떤 특정 기억이 공적 재현 과정을 거치면서 지배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적 생산’ 의미는 지배적이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반영을 의미했다. 이때 자연스럽게 지배기억과 달리 소외된 기억으로서의 대항기억 개념이 등장했으며 곧 이들 간의 정치적 권력 과정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에서 기억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구술사는 곧 기억 연구와 일맥상통한다는 관점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기억의 정치성 뿐 아니라 기억의 사회·문화적 특성까지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³⁰⁾ 그리고 점차 구술사는 기억의 다양성 회복, 기억의 원

30) 함한희, 『제주4.3 6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기억의 구술과 역사』, 제주4.3연구소, 제주광역시, 2010, pp.21~22.

형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나아가 공식화라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집단의 기억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관점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구술사는 기억을 통해 바라본 과거와 현재 시점으로 바라본 과거에 대해 동시에 다루는 과정에서, 각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억에 대한 적합한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기억을 보존하는데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이 망각되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억을 보존한다는 것은 곧 그동안 망각되고 소외되었던 기억들을 ‘기록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 기억, 구술 그리고 기록화(documentation & archiving)³¹⁾

기억과 구술, 그리고 그것의 기록화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록화를 통해 구술기록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억이 형성되는 장으로서의 아카이브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록학 역할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다.

기억은 사회적 구성물이며, 이를 매개하는 기록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 중 구

31) 보통 ‘기록화’는 ‘documentation’과 ‘archiving’ 개념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 ‘기록화’ 개념은 ‘documentation’과 ‘archiving’을 동시에 의미한다. 우선 ‘documentation’ 개념은 1차 자료로서의 기록의 수집 및 생산과 기존 기록과 새로운 기록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기억과 기존의 기억, 그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억 모두에 대한 기록화는 ‘archiving’의 개념과 연결된다.

술기록은 구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이다. 이때 구술기록 역시 사회적 구성물이다. 기억이 구술을 통해 기록화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억과 기록, 그리고 구술과 기억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상이던지 현재의 사회를 표상하던지 구술을 통해 사회적 기억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기억은 우리의 기억이 되며, 나의 증거는 우리의 증거가 된다. 기억이 형성되고 전수되며 또 재현되는 과정은 사회적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억과 구술사는 공통의 접점을 찾는다. 기억의 형성은 경험을 통해 시작되지만 경험된 것이 반드시 기억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수된 기억이 재현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억의 재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누군가에 의해 역사로 쓰여지는 것이다. 역사화된다는 것은 곧 사회의 공식적 기억이 된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재현의 과정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역사가 기억에 대한 ‘기억작업’을 수행한다면, 기록을 통한 기억의 기록화(documentation & archiving)는 역사와 더불어 ‘기억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시대를 통틀어 각 개인과 사회는 도식이나 텍스트나 그 무엇이던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매체에 선별적으로 저장·구조화·재현하며, 기억을 저장하는(테리다가 ‘기록화(archiving) 흔적’이라고 묘사했던) 장소들을 만들어 왔다. 이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재현하거나 상기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키비스트는 그 중 하나이다. 기록과 기존 관련기록을 연결시키면서 이를 통해 ‘기록의 흔적’이 형성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기록을 행위와 사건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이나 결정·행위·교류 등의 흔적을 기록화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로서의 기록은 행위와 사건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화 작업은 조직과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

능할 거대한 기록 프레임워크에 기록을 ‘위치지움’으로써 독립적이거나 협력적인 아카이브의 전환에 관여한다.³²⁾ 그럼으로써 개인적이거나 전체적인 것의 결합으로서의 ‘나의 증거(evidence of me)’가 집단적·사회적 기억의 구성 요소인 ‘우리의 증거(evidence of us)’로 전환된다. 즉, 개인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 즉 사회적 기억이 되는 것은 바로 기록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의 삶과 개인적 아카이브는 기록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기억(매케미쉬에 따르면 ‘우리의 증거’)로 전환된다.³³⁾

기억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는 어느 한 측면의 기억만이 선별되어 저장된 공간이었던 적이 있고, 여전히 그러한 경우가 있다. 최선의 지향점은 아카이브에는 최대한 다양한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다. 그 기억들에 사적(私的) 관점이 녹아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아카이브에 저장되는 순간 다시 아키비스트에 의한 개입이 일어난다 해도, 보다 다양한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최대한의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에 저장되기까지 기억에 개입한 다양한 흔적들을 아카이브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냐이다. 아카이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원형으로서의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공간이다. 여기에서 원형으로서의 기록이란 어떠한 사적 개입도 없는 완전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다양한 사적 개입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솔직함을 뜻한다.

아카이브가 담고 있는 사회적 기억은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의사소통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³⁴⁾

32)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33) McKemmish, Sue, “Traces :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McKemmish, Sue,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ed), Archives : recordkeeping in society, Topics in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No.24, Weggga Weg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12.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사회의 지속성·정체성·연속성·동질성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아카이브는 기능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억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 즉 한 사회는 기억되고 반추될 만한 가치 혹은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을 ‘결정’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매개한다. 동시에 사회적 기억은 과거를 재현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현실의 맥락에 개입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범위를 확장한다.³⁵⁾ 아카이브는 기억 망각을 강요하는 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기억을 남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해야 하고 왜 특정한 사건을 선별해 기록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기록화 여부를 통해 이후 기록을 활용한 역사 연구와 그 결과물로서의 ‘역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화는 역사에 의해 서술될 ‘역사적 사실’을 결정짓는 기원이자 원천이다.

또한 기록과 기억은 분명히 서로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³⁶⁾ 기록학에 있어 고전적인 정의를 만들어낸 젠킨슨(Hilary Jenkinson)의 기록의 기원과 관련한 논의에도 이는 나타나있다. 젠킨슨은 기록을 기억에 대한 보철로 인식했다. 이는 기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하는 매개로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논의점이 있다. ‘기록과 기억이 같은 것이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억은 기록으로 보관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록들은 보관되지 못하며 모든 기록들이 영원히 기록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망각된 것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망각해왔던 것들을 다시 기록화하는 작업은 그

34) Foote, Kenneth E., “To Remember and Forget : Archives, Memory, and Culture”, *The American Archivist* 53, 1990, pp.378~379.

35)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91.

36) Piggott, Michael, “Archives and memory”, S. McKemmish, M. Piggott, B. Reed, & F. Upward(ed), *Archives : Recordkeeping in society*, 2003, pp.299~328.

작업 자체가 기록화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 기록화해야 한다고 인식되었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그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케텔라르는 포스트모던의 해체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아카이브적 가치는 ‘확실성, 고유성, 그리고 유일성’이라고 말했다. 아카이브는 ‘Archivisation’과 기록화 과정에 숨겨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의미의 저장소로써, 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아키비스트 베른 헤리스는 아카이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카이브는 숙련자·전문가·학자들을 위한 은둔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도가니이다. 의미와 의미들의 각축장이며 이야기의 바벨탑이다.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힘의 공간이다.” 즉, 아카이브는 문서에 의미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과 개인들이 지닌 관점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장소이다.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는 그 사회의 정체성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기억으로의 관심 증대는 교과서, 역사서, 박물관, 유적, 대중 매체, 그리고 아카이브에 채워진 전통적인 것들보다는 다른 진실, 다른 대안, 다른 이야기, 다른 목소리에 대한 인식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힘을 갖기 시작했다. 이때 아카이브는 사회에서 시민권이 박탈된 집단의 역할을 합법화하고 인식하기 위한 논의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권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술, 문학,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아카이브는 무시되어 왔던 집단이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인식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위한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창조하는 것을 돕는다. 아카이브는 우리를 또 다른 이들과 연결시킨다. 아카이브는 무시된 집단이 더 큰 문화에 응집력있는 정체성을 제공하고 성립하기 위한 역사적 정체성과 역사를 구조화하는데 있어 비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의 장소가 아니다. 즉,

아카이브의 기록은 단지 발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확실히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구성된 가치와 사명을 지지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에 의해 창조되었다. 아카이브는 그래서 정치적 정체성의 구성이라는 일에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쿡은 “모든 기록들은 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진가들의 목적에 의해 구성되고, 재현되고, 상징화되고, 의미화된다. 텍스트는 완전 무결하게 생산된 개인적 행위나 행정적 부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성된 생산물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아카이브를 창조하기 위해 전개된다. 기록을 창조하거나 그것을 보존하거나 아카이브에 그것을 두기 위한 결정은 기억 구성 활동이 된다.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기록을 형성하는 의식적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을 만드는 일부 절차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 다른 것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전문적 비판에 의존하여 일상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가치있는 기록들을 보존하는 저장소로써 아카이브에 대해 계획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억을 구술하여 기록된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록화를 통하여 구술기록은 그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수집이 곧 생산이라는 구술기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미 생산된 기록을 생산자로부터 넘겨받아 기록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식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생산주체가 수집의 주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술기록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이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 의식적 계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적 계획에는 기록학적 관점의 반영이 필수적이다.

기록학에서 기록의 의식적·계획적 수집은 이른바 ‘다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ies)’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국내에서는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이라고 정의된다.³⁷⁾ 1981년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의회에서 하인딩(Andrea Hinding)이 보존을 위해 선별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이 “발생한 정보의 전체의 양은 얼마이며, 어떻게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가 보존을 위해 그러한 정보들의 일부를 선별, 결정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³⁸⁾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보존을 위해 선별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기존 기록이 수동적으로 수집된 것이었다면, 다큐멘테이션 전략에서의 기록은 활동을 증거할 기록을 노력하여 모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큐멘테이션을 ‘기록화’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1차 자료로서의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기록화 개념이 본 연구의 구술과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수집이 곧 생산이라는 특성을 지닌 구술기록은 1차 자료이면서, 동시에 의식적·계획적 수집을 통해 기록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1차 자료로서의 구술기록 개념이 가능한 것은 구술기록을 활용한 구술사와 구술기록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역사쓰기나 인류학적 글쓰기 등을 위한 1차적 자료이다. 물론 구술면담을 녹취하여 만들어진 녹취문의 경우도 구술기록의 하나로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구술기록도 가공의 형태가 있을

37)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서울, 2008, p.85.

38) Abraham, Terry,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 Theory and Practice”, *The American Archivist* 54, 1991, pp.45~46.

수 있다. 녹취문을 최대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자료의 기준으로서 가공성에 대해 어떤 범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기록화 범주 및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이 가능하다. 어떠한 구술자를 대상으로 구술기록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사전분석 단계이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전분석 단계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전분석 단계는 주로 기존의 문헌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문헌기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때 문헌기록의 조사는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참여가 없이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음으로 생산 및 수집 주체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성이 강한 구술기록의 특성의 경우 기록화를 통해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구술기록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구술기록이 생산 및 수집 주체가 다양하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정리한 바 있다. 다양한 주체는 곧 출처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출처에 대한 중요성이 기록학계 내부에서도 변화하고 있지만 기록의 출처가 지닌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록학 외의 학문에서는 기록이 가진 내용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지만 기록학에서 기록의 출처가 지닌 의미는 기록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내용에 의지하는 구술기록의 축적은 그 구술기록의 내용이 어떠한 주체에 의해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생산 및 수집 주체의 다양성을 내포한 구술기록이 기록화됨으로써 그 출처에 대한 기록화 역시 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기록화를 통하여 구술기록은 그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기록화를 통해 구술기록과 구술사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다. 기존에 구술기록과 구술사는 문헌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한다는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나 혹은 문헌기록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와는 반대의 측면의 기록이라는 반(反)문헌기록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구술기록과 구술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관점은 구술기록과 문헌기록을 대치시키고, 구술기록의 특성과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재조명하지 못했다. 이제는 구술기록과 구술사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구술과 그 기록화를 통한 구술기록으로서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대항기억이나 소수자의 기억만을 구술기록에 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기억의 상호작용과 그 사회적 과정 자체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의 소통을 담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술이 지닌 다양성과 상호작용성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기록학과 아키비스트의 가치 및 의미 신장과 동시에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신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록 각각의 절대적 가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가치는 당대 사회 가치관의 투영일 뿐이다. 따라서 개별 기록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며, 이러한 상대적 가치는 당대 사회의 사회적 과정과 그 구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³⁹⁾

39)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5. 아키비스트 역할론

1) 적극적 주체로서의 아키비스트

구술기록을 수집 및 생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아카이브 간에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구술기록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관리가 요구된다.⁴⁰⁾ 구술기록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 전반에 있어 전제로 하여야 할 개념은 아키비스트가 적극적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기록학계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된 논점은 이른바 적극적 역할론과 제한적·중립적 역할론이다. 제한적·중립적 역할론의 입장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며, 증거로서의 가치 유무를 통해 선별되고 평가된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행위한다. 이때 아키비스트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관받은 기록을 아카이브에 보관하여 기록관리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것이 기록으로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살피는 선별 및 평가과정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초기에는 아키비스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입장이었지만 점차 평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입장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의 선별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영구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된 기록은 그 객관성과 중립성에 있어 의심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때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관점하에 철저히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여 일련의 과정을 행위한다. 결국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사적 보존가치를 부여받은 기록

40) Filippelli, Ronald L., "Oral History and the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39-4, 1976, pp.479~483.

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며 이때 주관적 관점은 철저히 제한된다. 결국 제한적·중립적 역할론은 기록의 증거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어떤 관점이 객관적인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비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 것이 이른바 적극적 역할론이다.

적극적 역할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쿡(Terry Cook)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역사가들은 역사 연구를 위해 중립적 저장소로서의 아카이브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아키비스트들은 불편부당성이나 중립성, 객관성 같은 고유의 이른바 '직업상의 신화(professional myth)'를 부여받았다.⁴¹⁾ 하지만 쿡은 아키비스트를 '특별한 유형의 역사가'로 보았다. 그는 증거적 가치라는 한 측면만을 중시해왔던 기존 기록학적 풍토에서 기록이 과연 사회의 '진실한 가치'를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록은 그것을 통한 사회의 집단기억 형성과 그것에 기반을 둔 역사적 설명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근본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을 구축하는 것이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즉,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면 기억 또한 믿을 수 없고 기억에 의한 영향력이 부정되고 기억 구축을 위한 요구가 부재하면 증거는 무용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국 아키비스트는 주도적으로 증거와 기억을 조율하여 증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역할을 갖는다.⁴²⁾

또한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아키비스트들은 기록학의 몇 가지 전통적 주요 개념에 도전하기 시작했다.⁴³⁾ 첫째, 아키비스트들은 '진실'

41) Schwartz, Joan M. and Terry Cook, "Archives, Records, and Power :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1-19, 2002, p.1.

42)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92.

43) Cook, Terry, "Remembering the Future :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Francis X. Blouin, Jr., William G.

에 대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보관자라는 원리이다. 둘째는 기관(규정 혹은 제도)과 문서로서 아카이브는 행정(행정부)과 활동에 대한 생산에 있어 공정한 입장에 있다는 개념이다. 셋째, 기록의 기원이나 출처는 다중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의 기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는 국가 고유의 거대담론을 수동적으로 이어받은 것이라는 개념이다.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브를 향한 이러한 개념은 앞서 살펴본 중립적·제한적 역할론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단순히 활동의 부산물로서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기억을 매개하는 주요한 근거이자 의식적·계획적 활동의 결과로서의 기록을 상정해야 한다.⁴⁴⁾ 따라서 아키비스트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이러한 기록의 의미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동시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전승해야 한다. 또한 케텔라르(Eric Ketelaar)의 ‘의미의 계보학(semantic genealogy)’ 개념과 같이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이 합의된 광범위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록의 복합적인 의미가 배열되는 동적(動的)질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앞의 원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기록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생산단계에서 생산자가 의도한 의미라고 보는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기록의 의도된 의미는 생산 시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기록이 처리될 때나 활용될 때도 발견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추후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과 맥락이 개입하는 복합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아카이브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관점은 기록의 역동성 등 새로운

Rosenberg, Archives,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CP, Univ of Michigan Press, 2007, p.174.

44) 이승역,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호, 한국기록학회, 2002.

논의에 의해 도전받았다. 이제 아카이브는 결코 완성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닌 항상 다르게 읽혀지고 해석되고, 재형성되어지는 역동적인 존재이다.⁴⁵⁾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적 기억의 역동성과 재해석의 특성, 변화가능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케텔라르는 오랫동안 아키비스트들은 중립성과 엄격성에 근거한 기록과 기억의 보관자로 인식되어 사회적 기억 형성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꺼려왔음을 지적했다.⁴⁶⁾ 그는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사회적 기억 형성의 방식으로 보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요소가 개입하여 각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 기록이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브에 투영되었던 껌트리적 관점이다. 의식적·계획적 생산물로서의 기록은 그 생산 과정에서 이미 기록 생산을 계획한 주체들의 관점을 담는다. 각 주체의 관점을 통해 기록화될 즉, 생산될 기록이 결정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관리 및 보존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관점이 담겨진다. 이때 참여주체의 중심에 있는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주로 기록에 담기게 된다. 물론 아키비스트가 가진 관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맥락이 그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그가 속한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의 기록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력이 반영되며 이때 가장 적극적인 주체는 아키비스트인 것이다.

일련의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최근 아키비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아키비스트는 기억과 망각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키비스트

45) Ketelaar, Eric, "Recordkeeping and societal power", McKemmish, Sue,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ed), Archives : recordkeeping in society, Topics in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No.24, 2005.

46)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2), 2001, pp.131~141. p.131.

는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기록의 퇴적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으며, 기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불편부당한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전통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전통적 입장에서 맹목적인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사회적 사명은 다시 대안적 관점에서 다른 의미의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양하고 평등한 원형으로서의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라는 사명이다. 그들은 ‘진리’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것보다는 보다 다양하고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은 가능한 그 사회의 원형을 남기는데 주력한다. 그 사회의 기억 주체들이 지닌 기억들을 그 사회의 관점을 통해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각 주체들의 관점을 통해 기록화하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키비스트 역시 사회의 일원이자 기억의 주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몇몇 역사가들과 아키비스트들은 아키비스트가 사회에서 힘있는 집단을 일반적으로 반영해왔던 미국의 아카이브에서 그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집단에 대한 문서들을 보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쟁했었다.⁴⁷⁾ 이 과정에서 하워드 진(Howard Zinn)은 아카이브 기록이 정부·기업·군 등 사회의 힘이고 부유한 이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키비스트들이 “일반 사람들의 요구와 희망, 삶에 대한 문서 자료에 대한 새로운 세계의 자료를 모아야 함”을 주장했다.⁴⁸⁾ 이는 아카이브에서 소외된 집단을 기

47) Blouin, F. “Archivists, mediation, and the constructs of social memory”, *Archival Issues* 24, 1999, pp.101~112.

48) 하워드 진은 1970년 SAA 연례회의에서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정치적 실천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보다 완전한 기록을 생산

록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 뿐 아니라 기록 수집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쟁의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들이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기존의 선입견에 대항하기 위해 아키비스트들은 노력해야만 하고,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곧 최근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기록 생산자와 아카이브 사이의 조정자, 아카이브와 사용자간의 조정자, 과거에 대한 개념과 당대 기록화 사이에서의 조정자로 확대되고 있다.⁴⁹⁾

2) 구술기록과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는 스스로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로라 밀러(Laura Millar)에 의하면 21세기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독자(auditors)가 되어 사회적 기억을 담은 기록을 보호하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감시기능은 관리 자체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다. 아키비스트들은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를 이끄는 과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것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역사가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들은 그들의 행위와 결정을 설명하고 기록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컨설턴트로서 기록 생산단계에서 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평가수집 주체를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학계가 주목한 것은 ‘기록 수집가로서의 아키비스트’라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아키비스트는 항상 자신의 역할을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 기록을 의식적으로 구하는 ‘능동적 수집가’라기보다는 기록의 ‘수동적 보관자’로 생각해왔다.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호, 한국기록학회, 2010, p.118.

49) Blouin, F., “Archivists, mediation, and the constructs of social memory”, *Archival Issues* 24, 1999.

50) Millar, Laura, “The Spirit of Total Archives : Seeking a Sustainable Archival System”, *Archivaria* 47, 1999.

록관리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본래 전통적인 기록학에서는 아키비스트가 구술기록 생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⁵¹⁾ 구술기록의 내용이나 구술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통적 기록학의 제 개념과 구술사의 특성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기록을 아카이브에 포함시키는 것과 아카이브에서 구술기록을 수집하거나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에 있어 핵심적인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⁵²⁾ 전통적 문헌 중심 기록학은 19세기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역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주로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텍스트 비판주의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즉 엄격하게 비판된 자료에 근거하여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밝히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구술사는 매우 의심스러운 존재였다. 구술기록은 공식적 기록보다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술은 의도적 목적을 갖고 생산되며, 제3의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기억에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간의 직접적 대면이 용이해지고, 녹음 및 녹화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역사사료로서 그리고 기록의 하나로서 구술은 입지를 갖게 되었다. 점차 기록학계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출처의 개념에 있어서도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연구범위에 있어 다양한 사회집단, 남성 엘리트에서

51) Moss, William W., "Oral History", William W. Moss, James Gregory(ed),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149~160.

52) Wallot, Jean Pierre and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Robert Perks and Alistair Thomson(ed), The Oral History Reader, London 2003, pp.365~378.

여성이나 평범한 사람들과 주변인들로 관심이 확장되었다. 또한 학제 간 연구가 증가하였고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기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사회과학자나 인문학자, 법률가 등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통해 기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록을 선별하여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더 이상 중립적 수집가 및 관리자로 한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왔다. 어떤 기록을 남기고 생산하며 보존할 것인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부상된 것이다. 그리고 기록이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쌓인 퇴적물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가 잊어버린 요소들, 침묵당했던 것들, 기존 기록에서 벌어진 틈새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서 구술기록은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기록학계에서 기록에 구술기록을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1995년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연설에서 ICA 회장 장 피에르 월롯(Jean Pierre Wallot)은 아키비스트의 참고틀에 구술사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전 세계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제3세계 사람들이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문헌 기록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활발한 구술 문화와 정교한 구술 전통과 구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⁵³⁾ 그는 구술을 기록학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학자이다. 그에 의하면 구술기록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팽창할 것이다. 그는 구술사에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때 아키비스트는 구술사 프

53) Piggott, Michael, "Archives and memory", S. McKemmish, M. Piggott, B. Reed, & F. Upward(ed),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2003, pp.299~328.

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출처나 맥락, 증거적 가치와 같은 기록학적 관점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⁵⁴⁾ 이후 기록학 연구자들은 구술기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술시 면담자가 활용했던 각종 문헌 기록들은 구술기록의 질과 향후 구술기록을 활용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하였다.⁵⁵⁾ 즉, 구술사 혹은 구술면담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화하는 행위 과정에서 문헌 기록의 활용, 그리고 문헌 기록과 구술기록과의 연관성 등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기록학계에서는 구술사가 아키비스트가 담당해야 할 새로운 분야라고 보기 시작했다.⁵⁶⁾ 구술기록은 일반 기록과 달리 생산주체와 매체, 생산과정 및 보존과 활용, 법적 문제 등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다.

구술은 단지 구술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록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이는 구술기록을 단순히 수집하여 축적해 두는 단순한 방식의 접근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록학적 관점을 투영한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54) Wallot, Jean Pierre and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Robert Perks and Alistair Thomson(ed), *The Oral History Reader*, London 2003, pp.365~378.

55) Colman, Gould P., "Oral History : An Appeal for More Systematic Procedures," *The American Archivist* 28-1, 1965, p.83.

56) 예를 들어 최근 기록학 연구의 하나로서 '노근리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어떻게, 언제,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등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구술기록이 노근리사건 연구에 있어 가장 주요한 기록으로 활용되었음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가치있고 영향력이 큰 증거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구술기록이 충분히 활용되었다는 것이었다. Donghee Sinn, "Room for archives? Use of archival materials in No Gun Ri research", *Archival Science* 10-2, 2010, pp.117~140.

3) 구술기록 수집 및 기획단계에서의 아키비스트 역할론

일련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 아키비스트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론에 대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는 의미로서의 구술기록의 기획 수집을 다룰 수 있다. 구술기록의 기획 수집단계에서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론에 대한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근 기록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록 연속체론(Record Continuum Theory)과 전자기록 출현 이후의 현대기록관리의 주요 이론들이다.

기록 연속체론의 다이어그램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다이어그램의 증거 축선에서 주요하게 개념화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기록이 함유하고 있는 양대 가치인 증거와 기억이 그것인데, 여기에는 기록이 증거로 획득되기 이전의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미 생산·획득된 상태의 증거로서의 기록을 다루는 것이 아닌 그 이전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기록의 존재주기를 보다 포괄적이고 사전적으로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인식은 아키비스트가 레코드키퍼 시스템 전체에 미리부터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⁵⁷⁾

또한 전자기록 출현 이후 현대기록관리의 주요 논의에 따르면 기록의 진본성을 확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보다는 '생산맥락'이다.⁵⁸⁾ 생산맥락은 기록의 생산시점 내지 그 이전부터 기록 생산

57) 인간행위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 기록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점에서부터 잘 기획되고 그 과정 자체를 기록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커닝햄(Adrian Cunningham)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70.

58)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승역, 「전자환경에서의

과 관련한 각종 기술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생산 시점 내지 그 이전단계부터 기록이 생산되는 기능, 절차에 대해 분석해야 하며 동시에 도출된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통합시켜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아키비스트가 생산 시점 내지 그 이전단계부터 기록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개입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록이 영구 보존되어 후대에 이용될 때 기본적으로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록은 진본성을 확보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생산맥락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목적을 갖고 그 기록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에게 생산맥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은 생산맥락을 통해 이용자 각각의 관점을 통해 기록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록의 형태와 매체와 관계없이 생산맥락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생산맥락의 확보를 위해 생산 시점이 아닌 그 이전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생산 이전 단계부터 기록의 생산과 보존 등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안목을 가진 계획적 기록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케텔라르는 기록이 업무의 사후적 산출물이 아니라 사전적 획득 프로세스를 상징한 의식적·계획적 생산물이라고 본다. 기술적 변화로 인해 사전적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가능해지면서 기록 생산 이전에 기록에 담아야 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⁵⁹⁾ 이와 유사하게 앤 길랜드(Anne J. Gilliland)는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중적인 매체에 중복적으로 보존된다는 특성을 지닌 전자기록 환경에서 각 전문직 공동체 집단과 정보 생산자는 새로운 메타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

기록관리 개념에 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6호, 한국기록학회, 2002;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 2003.

59)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s :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2, 2001, pp.131~141. p.133.

기록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생산 및 보존 전반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기록이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아키비스트가 주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록이 사회의 집단기억을 구성하는 매개로 작용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몫이다. 또한 최근 기록학 담론에서는 아키비스트를 기록에 관한 ‘공동생산자’ 또는 ‘공동작성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관점 개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상호작용을 분별하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내야 한다. 콕스(Richard Cox)는 이미 아키비스트가 자신이 내린 결정을 기록화함으로써 기록이 처리된 맥락을 남겨두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⁶⁰⁾ 과거 국가의 배타적 영역이었던 통치의 증거로서의 아카이브의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사회의 다원적 주체들이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보존·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Governance)개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일방적인 통치의 증거나 공적 행위의 증거, 공식적 기억만이 아닌 ‘거버넌스에 관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며 나아가 그러한 기록이 생산·조직·보존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날 전자기록에 주로 적용되는 이러한 일련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의 기록 모두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술기록에도 생산 이전 단계부터의 장기적 관점과 안목을 가진 계획적 기록화의 필요성이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구술기록의 생산 및 수집단계에서 아키비스트는 생산기획자로서 그리고 생산을 통한 새로운 기록을 수집할 경우 생산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생산과 관리, 보존이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60)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케텔라르의 ‘의미의 계보학(semantic genealogy)’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아키비스트가 구술기록을 생산주체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 있어 기존의 구술사가들은 비판적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사실상 구술이 이루어지는 주제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적 요인이 된다. 하지만 기록은 지식이 아닌 행위이다. 따라서 기록이 지닌 정보적 가치를 기준으로 총체적인 사회상을 형성시킬 수는 없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내용'이 아닌, 내용을 뒷받침하는 '맥락'을 복원시키는 것이 본원적 임무라 할 수 있다.⁶¹⁾ 또한 구술기록의 기본적 생산맥락 확보는 생산 단계 이전부터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계획과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6. 나오는 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기억은 기존의 집단기억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기억을 드러내기 위한 매개의 하나로서의 구술기록은 아키비스트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기록의 하나이다. 아키비스트는 구술기록을 생산 및 수집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구술사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주로 개인적 연구의 목적 등에 제한한 구술기록의 수집에 집중했다면, 아키비스트가 생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구술기록의 수집은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안목이 반영될 것이다. 그들은 기록을 통해 사회를 표상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 많은 원형으로서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당대의 사회적 기억을 해석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61)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 2003, p.55.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⁶²⁾ 기록학적 관점이 반영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는 곧 시대적 사명이다. 여기에서 기록학적 관점이란 일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에 편향하지 않은 보다 광범위하고 미래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는 주체는 비단 아키비스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술사가 한 학문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구술기록을 수집하여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는 것 역시 기록학계만이 해야 할 분야는 아니다. 이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역할 재정립이다. 아키비스트들은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에 있어 스스로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 구성에 있어 적극적 행위자이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거나 보존하는 것만큼 미래에 대한 예견과 요구를 고려하고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스스로 왜 일부 기록을 파괴하거나 보존할 것을 결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명백한 설명을 남겨두어야 한다.⁶³⁾

본 연구는 구술기록을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관점에서 다룬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구술기록에 사회를 표상하는 기록의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기록학 내에서 기록군의 다양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구술사연구의 도약 및 기록학 연구의 범위 확장 및 새로운 담론의 형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한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을 정리하여 소

62) 광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비평사, 서울, 2003.

63) Cook, Terry, "Remembering the Future :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Francis X. Blouin, Jr., William G. Rosenberg, Archives,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CP, Univ of Michigan Press, 2007, pp.169~170.

개함으로써 기록학 연구자들에게 논의의 주제를 던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계 내부의 활발한 이론적 논의는 곧 기록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다양한 학문들과의 교류를 가능케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 신장 및 그 가능성을 재고하고자 한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전문 분야의 선점 및 독점이라는 관점이 아닌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발전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하나의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그 영역을 확장해야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협소하고 폐쇄적인 구조는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폐쇄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곧 연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였다. 개념을 통한 이론화는 실제적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하였고, 주제의 세분화는 보다 포괄적이거나 더 세분화된 주제연구를 기대하게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록학적 관점 하에서 구술기록과 문헌기록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구술기록과 문헌기록을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두 기록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 연속체론의 개념과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개념을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 두 개념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구술기록과의 관련성에 한정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개념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몇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다면 이론과 실체가 조화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Choi, Jeong-eun

Recently, a topic of Archival Science can be said 'paradigm shif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oral record and Archival Science through concept of the archiving 'social memory' related to paradigm shift of Archival Science. In addition, an active role theory by an archivist as main agent of archival oral record manageme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ral record based on this will be supported. Especially, even if it has already been handled through previous studies, it will be focused on drawing new meaning by applying creative perspectiv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discussion will be progressed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he archiving 'social memory'. This is related to the topic of 'paradigm shift' in the Archival Science. Despite that ac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mong mainly archival researchers overseas, it has not been handled ye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o organize this part as detail purpose.

Secondly, the point will be progressed with a special focus on collecting and planning stages among the stages of records management. A viewpoint of the Archival Science should start from the stage of collecting and planning the previous record of production point of time, and then should be reflected for

acknowledging the subsequent stages. Therefore, collecting and planning are the most important, and this is closely connected with a characteristic of oral record which production means collecting.

Thirdly, the concept of 'oral record' is established with the viewpoint of the Archival Science. The various documents have been produced through oral interview has been known to many oral history researchers as 'oral source'. It aims to conceptualize them as 'oral record' with the viewpoint of the Archival Science.

Fourthly, it is an establishment of meaning why oral history should be handled

in the Archival Science.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purpose and its appropriateness handling oral history in the Archival Science. It should clarify the reason why oral history is important in the Archival Science and what it means. This will help examine the meaning of the recording of 'oral record.' A characteristic of the oral record can be effectively revealed through the recording, and ultimately, it aims to be able to shed new light on the value of oral history and oral record.

Finally, it defines the role of archivist in oral history. A point that archivist in oral history is not just an assistant who organizes and preserves oral records collected by researchers will be emphasized and persuaded.

In this study, oral history study in the Archival Science which has obtained appropriateness by the theoretical discussion as above should be conducted in a connection with other studies without occupying oral history by the Archival Science and in a direction of the leap of Korean oral history study. If this is possible, it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cience and of study area expansion, enhancement of the role and potential of archivist, at the same time, eventually it will positively influence on oral history study.

Key words: Archival Science, oral record, oral history, archivist, social memory, paradigm shift